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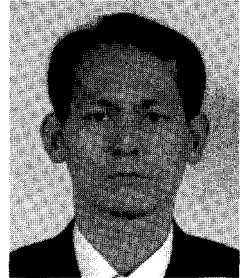
일본 외 양계업

산 란 계

난가 후반기에 약세 전망

작년 9월부터 회복한 계란 가격은 금년 초부터 상승곡면으로 이어져 1월 평균가격은 14년 만에 200엔(동경 M크기) 대를 기록, 2월평균 가격은 272엔이 되었다. 2월 한때 280엔까지 올랐던 난가는 3월 275엔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점차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전년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나 계란 관계자의 최대 관심사는 “이렇게 높은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이다. 병아리 입추 경향으로 예상한 계란 생산량을 추산하면 금년 전반기는 작년 동기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반기는 생산량 감소에 의해 전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난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늘어난 병아리를 고려하면 빠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생산 과잉도 우려된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G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농협 계란회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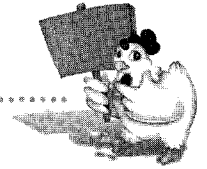
농협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열어 2005년도 사업계획과 계란회사 가칭 「JA 농협계란」 등을 결성하였다. 계란회사는 대도시소비지에서 계통출하와 판매의 일원화를 시도하면서 직판기능이나 상품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다. 농협출자금 21억엔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8월에는 전국본부 4개 센터(中央, 中京, 近畿, 九州)의 계란판매사업을 설립한 새 회사로 이관하며 농협계란(주)을 합병하여 총자본 25억 엔의 회사로 바꾸는데, 계란가격안정기금이나 행정대응 등의 사업은 농협에서 계속한다.

사업내용은 (1)계란의 집하·판매, (2)계란자재 등의 판매, (3)계란가공품의 제조·판매, (4)계란의 가격발표, (5)기타 계란 판매에 관련된 업무 등이며 2005년 8개월간의 연간 수입은 600억엔, 2006년에는 915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사원은 현재 계란을 담당하는 농협직원과 농협계란회사원의 약 170명으로 본사는 현재의 중앙계란 센터에 두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일본계란팩협의회 발족

일본계란팩협의회 추진회가 오오사카(大阪)에서 열려 초대회장이 위임하였다. 이 협의회는 계란업계의 발전과 업계의 장래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용기의 안정성 확립, 환경문제, 회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계란팩업계의 발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팩제조회사가 참가를 요청하여 설립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1)계란업계의 발전을 위한 제안, (2)계란팩에 관한 환경문제 연구, (3)계란팩에 관한 디자인 및 기술 개발, (4)계란팩에 관한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5)국내·외 기관과의 연락·연대, (6)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며 회원 자격은 계란팩 판매 사업이 판매액의 50%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육 계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추진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위생관리과에서는 2005년도 전국가축위생주임자회의를 열어 (재)전국경마·축산진흥회의 조성하고 (사)일본동물용의약품협회가 사업주체가 되는 (1)조류인플루엔자백신 등 긴급개발사업, (2)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실태 조사 연구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긴급개발사업은 유효성 및 안정성 등이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백신의 승인을 시급하게 받고 일본산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2007년까지 실시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실태 조사 연구사업은 승인 또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하여 (1)방역지침에 따라 사양실태에 맞는 접종 프로그램 작성, (2)DIVA시스템에 의해 더욱 범용성 있는 야외바이러스 감염식별 신속진단 키트의 개발, (3)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신속하게 환경이나 공중위생을 고려한 오염물 처리 방안의 확립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가금인플루엔자 백신은 금년 중에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시험할 예정이다(계명신문 발췌).

소형소각로 「MAX」발매

축산용 소각로 제조회사인 (유)규슈정기(九州精機)는 이 회사의 주력제품인 구조기준 적합형 폐사계소각로 「룡런」의 소형기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소형소각로 「MAX」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다. 신제품 「MAX」는 룡런시리즈의 소각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소형화·설득력 있는 가격·낮은 운영비용을 구현한 것으로 1,500℃의 내화재를 사용하였으며 소각로와 이차연소실, 배연장치를 일체화한 간단한 설계로 되어 있다.

주요 특징은 (1) 완전연소를 위하여 버너를 상부에 경사지도록 부착, (2)연기가 나지 않도록 소각로를 종형으로 세웠고 L자형 이차연소실과 특수형상의 배연장치로 연기제거, (3)투입구를 경사지게 만들어 작업의 편이, (4)1,500℃의 내화재를 사용한 안정성과 바퀴를 부착시 내구력을 향상시켰고, (5)구조기준 적합형을 채택하여 신고가 불필요하다 등의 장점이 있다(계명신문 발췌).

통일된 「닭고기 검사 신청 보고서」작성

일본닭고기처리유통협의회는 산란계농장에서 도계장으로 출하된 성계에 대하여 「닭고기 검사 신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된 양식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고 가축보건위생소의 집계업무가 번잡하여 중지한 것으로 농가에게는 이상한 닭의 발견시 조기통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재보고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닭고기검사에서는 이 보고가 이상발생의 사전정보로 활용되어 중지에 따른 관계업자가 제출하는 닭고기검사신청서에 「출하 3일전 양계장의 폐사계가 10%를 넘지 않음」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특히 노계 도계의 경우 지역을 넘어 노계가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통일된 서식이 필요함에 따라 3일전 폐사계의 수수를 확인하는 「닭고기 검사 신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후생노동성 등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소, 농장명, 사육수수, 출하 전 3일간의 폐사계 수수 또는 폐사율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계명신문 발췌).